

대한제국의 성립과 명성황후(明成皇后) 국장(國葬)의 변화*

이 옥**

1. 서론
2. 빈전의 공간과 의례
3. 아관파천과 국장의 전환
4. 대한제국의 선포와 황후의 국장
5. 결론

1. 서론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짧았던 대한제국기 동안 명성황후(明成皇后, 1851-1895), 효정왕후(孝定王后, 1831-1904), 순명비(純明妃, 1872-1904)의 국장이 있었다. 이 세 국장은 근대 시기 국장의 변모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대한제국의 성립 과정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명성황후의 국장이다. 현종의 계비인 효정왕후는 왕비의 지위로 승하하고 국장 역시 그 지위에 맞추어 치러졌다. 순종의 첫 번째 비(妃)인 순명비 역시 황태자비

* 이 논문은 2017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산하 종교문제연구소 동삼운해유교연구기금으로부터 지원 받았음.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로 승하하여 그 지위로 장사되었다. 이에 비하면 명성황후는 1895년에 조선의 왕비로 승하하였지만 대한제국의 성립과 더불어 황후로 추존된 뒤에 비로소 국장이 치러졌다. 그 과정은 불행하고도 슬픈 죽음, 개인적 아픔을 넘어 국가의 치욕을 치유하는 긴 시간이었으며 대한제국 성립의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었다.

1895년에 8월 20일(음)에 시해당한 명성황후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두 달이나 지난 10월 15일(음)이었다. 이때에 비로소 시해의 장소인 곤령합(坤寧閣)에 올라가 초혼(招魂)을 하고 국왕과 왕태자, 신하들이 그 동안 참았던 곡을 하며 그 죽음을 애도할 수 있었다. 이후 명성황후의 국장은 크게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김홍집 내각에 의해 주도되었던 시기로 10월 15일(음)부터 1896년 2월 11일(양) 아관파천이 발생하기 직전까지이다. 두 번째 단계는 아관파천 이후부터 1897년 10월 12일(양) 대한제국이 성립되기 직전까지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대한제국 성립부터 1898년 4월 12일(양) 담제(禫祭)를 거행하고 국장을 마무리할 때까지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단계를 통해 명성황후 국장의 추이를 살필 것이다. 이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경효전일기(景孝殿日記)』를 택하였다. 조선시대 국장 관련 자료들은 매우 다양하다. 조선시대 국장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또는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의 규정을 기본 매뉴얼로 삼았다. 그리고 국장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은 『국장도감의궤』, 『빈전혼전도감의궤』, 『산릉도감의궤』 등의 의궤를 통해 추적할 수 있다. 이들은 임시 관서인 국장도감, 빈전혼전도감, 산릉도감의 기록인 만큼 그 내용이 자세하다. 그 외 전생서나 전향사, 계제사 등과 같이 국장과 직접 연관된 부서에서 업무 수행 과정을 남긴 국휼등록 역시 중요한 자료이다. 명성황후의 국장 역시 의궤와 등록 자료들이 있다.¹⁾ 그러나 이들 국장 자료들은 중요하지만 외관(外官)이 기록한 것이란 한계를 지닌다. 왕실의 국장은 외관과

1) 명성황후 국장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규 13879), 『명성황후빈전혼전도감의궤(明成皇后殯殿魂殿都監儀軌)』(규 13885), 『명성황후홍릉산릉도감의궤(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규 13891), 『명성황후홍릉석물중수도감의궤(明成皇后洪陵石儀重修都監儀軌)』(규 13896), 『명성황후국휼등록(明成皇后國恤錄)』(장, K2-2933), 『경효전일기(景孝殿日記)』(장, K2-2418).

구분되는 내관(內官, 내시)이나 여관(女官, 궁녀)을 통해 거행되는 부분이 있다. 이들은 대행대왕이나 대행와비의 시신 곁에서 매일 음식을 올리고 시중을 든다. 줄곡 이후 도감의 해체되고 연제, 대상, 담제 등 몇몇 의식들만 관리들의 참여하지만 이들은 3년상이 끝날 때까지 혼전을 지킨다. 이러한 것에 대한 기록은 각 국장의 영전일기(靈殿日記) 형태로 남아있다. 본고는 명성황후의 혼전일기인 『경효전일기』를 중심으로 국장의 변모를 살펴볼 것이다.²⁾ 이를 통해서 기존의 자료가 보여주지 않는 빈전과 혼전의 내밀한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본고는 명성황후의 국장을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부각시킬 것이다. 명성황후의 국장은 시작부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시해의 비참한 죽음뿐만이 아니라 사망 이후 그 사실을 공포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명성황후 국장은 많은 변례들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장을 전후하여 조선시대 국왕-의정부-육조의 정부 조직은 궁내부와 의정부의 이원 체제로 바뀌었고, 태양력을 수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하여 국장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본고는 이러한 변화를 이전과 비교하여 찾아보고자 한다.

셋째, 제후국에서 황제국으로 격이 높아짐에 따른 국장의 변화에 주목할 것이다. 명성황후 국장이 이전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는 왕후와 황후의 위격에 따른 의장의 변화이다.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은 개항 이후 열강 속에서 위협에 처한 조선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고종은 그 슬픔을 대한제국의 성립을 위한 힘으로 전환시켜나갔다. 대한제국의 성립은 명성황후의 국장을 통해 구체화된 것이다. 이러한 전환을 보여주는 의장(儀仗)과 의례의 변화에 주목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항 이후 새로운 국면에서 조선시대 국장이 어떻게

2) 장서각 소장 『경효전일기』(K2-2418)는 2책이지만 이는 같은 내용의 『경효전일기』 2질이 있는 것이다. 제 1책의 『경효전일기』가 원본이고 제 2책의 『경효전일기』가 이를 다시 베껴 쓴 것 같다. 한편, 『경효전일기』 등의 영전일기는 ‘혼전일기(魂殿日記)’라고도 부른다. ‘경효전’은 왕후가 승하 후 받은 전호(殿號)이다. 이 전호는 혼전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반드시 혼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기의 내용도 초상 때부터 다루기 때문에 빈전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 책이 혼전에 국한되지 않고 빈전과 혼전의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혼전일기’보다 ‘영전일기’로 명명하였다.

변모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빈전의 공간과 의례

1) 빈전 공간의 특징과 구성

1895년에 8월 20일(양 10. 8)에 시해당한 명성황후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두 달이나 지난 10월 15일(양 12. 1)이었다. 김홍집 내각은 그들의 만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행왕후(大行王后)의 사망을 알리기에 앞서 왕후를 서인으로 폐위시켰다. 왕후로서의 공적인 지위를 박탈하여 그 죽음의 의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태자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황후의 지위를 서인에서 다시 빈(嬪)으로 승격시켰다. 8월 26일(양 10. 14)에는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여 세우려고까지 하였다.³⁾ 그러나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춘생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어지러운 정국에서 왕후의 죽음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자 10월 10일(양 11. 26)에 왕비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고, 10월 15일(양 12. 1)에 비로소 왕비의 죽음을 공포하였다.⁴⁾

승하한 후 두 달이 지나서 거행되는 국장이지만 그 절차는 예전의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승하 사실을 공포한 10월 15일(음) 미시(未時, 오후 1-3시)에 내관(內官) 변학영이 시해의 장소였던 곤녕합(坤寧閣) 지붕에 올라가 왕비의 옷을 잡고 북쪽을 향해 혼령이 돌아오라고 세 번 소리쳤다. 이때 사용한 복의(復衣)로 옥체를 덮었다. 그리고 비로소 국왕과 왕태자, 신하들이 그 동안 참았던 곡을 하며 그 죽음을 애도하였다.

3) 『고종실록』 고종 32년 8월 26일(갑오).

4) 『고종실록』 고종 32년 10월 15일(임오).

〈표 1〉 명성황후 국장 일정

| | | |
|-------|-------------------------|-----------------------|
| 1895년 | 10월 8일(음 8. 20) | 건청궁 곤련합에서 시해당함 |
| | 10월 10일(음 8. 22) | 서인으로 폐위 |
| | 10월 11일(음 8. 23) | 빈으로 승격 |
| | 11월 26일(음 10. 10) | 왕비 복위 |
| | 12월 1일(음 10. 15) | 사망 공식 발표. |
| | 12월 5일(음 10. 19) | 성빈成殯[경복궁 태원전] |
| | 12월 8일(음 10. 22) | 성복成服. 시호, 전호, 능호 정함. |
| | 12월 29일(음 11.14) | 산릉 공사 시작[승릉 오른편 언덕] |
| | 12월 30일(음 11. 15) | '제3차 갑오경장' 시행. 양력 시행. |
| 1896년 | 2월 11일(음 1895. 12. 28.) | 고종 아관파천 |
| | 3월 10일(음 1. 27) | 세 도감의 구역 중단 |
| | 9월 4일(음 7. 27) | 빈전을 경운궁으로 이전 |
| | 9월 27일(음 8. 20) | 서거 1주기 친행 기신제 |
| 1897년 | 1월 3일(음 1896. 12. 1) | 산릉을 청량리로 정함 |
| | 1월 6일(음 1896. 12. 4) | 시호, 능호, 전호 다시 정함 |
| | 1월 9일(음 1896. 12. 7) | 3도감 구역 시작 |
| | 2월 20일(음 1896. 12. 28) | 고종 아관에서 경운궁의 환어함 |
| | 4월 3일(음 3. 2) | 산릉 봉표를 다시 함 |
| | 4월 16일(음 3. 15) | 일정 다시 정함(2차 연기) |
| | 5월 31일(음 5. 1) | 일정 변경(3차 연기) |
| | 8월 14일 | 연호를 광무光武로 변경 |
| | 8월 26일 | 일정 다시 조정함(4차 연기) |
| | 9월 16일(음 8. 20) | 2주기 기신제 |
| | 9월 24일 | 일정 변경(5차 연기) |
| | 10월 12일(음 9. 17) | 황제 즉위. 황후 책봉 |
| | 10월 15일 | 일정 변경(6차 연기) |
| | 11월 5일(음 10. 11) | 시호諡號[명성明成] 올림 |
| | 11월 21일(음 10. 27) | 해사제解辭祭. 발인發引 |
| | 11월 22일(음 10. 28) | 하현궁 및 반우 |
| | 12월 6일(음 10. 13) | 9우제虞祭 거행 |
| | 12월 8일(음 11. 15) | 졸곡 거행 |
| | 12월 9일(음 11. 16) | 종묘 부알례 거행 |
| 1898년 | 1월 4일(음 1897. 12. 12) | 연제練祭 거행 |
| | 2월 11일(음 1. 21) | 상제祥祭 거행 |
| | 4월 12일(음 3. 22) | 담제禫祭 거행 |

대군주폐하[고종]가 곤녕합 서쪽 방에서 거애(擧哀)하였고, 왕태자는 머리를 풀고 슬퍼하였다. 왕태후[효정왕후]와 순화궁(順和宮, 현종의 후궁 慶嬪 김씨)이 거애하고, 왕태자비, 군부인은 곤녕합 서쪽 익각(翼閣)에서 피발(被髮)하였다. 봉사전수내관(奉侍典守內官)들은 곤녕합 남쪽 뜰에 모여 곡하였고, 신하들은 정양문(正陽門) 밖에서 곡하였다. 17일에는 사직, 종묘, 영녕전, 경모궁의 사당에 왕후의 승하 사실을 아뢰고, 옥체를 목욕시키고 습의를 입혔다. 반함(飯含)은 자내(自內)에서 행하였다. 『국조상례보편』에 의하면 내상일 경우 반함의 주관자는 왕이나 왕세자이다. 왕대비가 승하한 경우 국왕이 반함을 하고, 왕보다 왕비가 먼저 승하한 경우엔 왕세자가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꼭 지켜진 것은 아니다. 1890년(고종 27)에 승하한 신정왕후(神貞王后, 翼宗妃, 1808~1890)의 국장에선 왕대비가 반함을 거행하였다.⁵⁾ 그러나 명성황후의 국장에서는 ‘자내에서 거행하였다’라는 기록만 있다. 신시(申時)에 소렴을 거행하였는데 시신에 의대를 입힌 후 대군주의 곤룡포로 덮고 엽금(斂衾)으로 묶었다. 이렇게 본인의 옷가지 외에 친근한 자의 옷을 재궁에 넣는 것은 당시 관습으로 보인다. 신정왕후의 경우 익종과 현종의 의복을 재궁에 넣었다. 반면 엽습하기 전에 시신을 덮었던 복의(復衣)는 함에 넣어서 신탁(神卓) 아래 두었다.

12월 1일에 국상을 총괄하는 충호사에 궁내부 특진관 조병세를 임명하였다. 그리고 빈전을 경복궁의 태원전(泰元殿), 혼전을 문경전(文慶殿)으로 정하였다. 태원전은 경복궁의 북서쪽 제일 후미진 곳에 위치한 전각이다. 이렇게 안쪽 구석에 있는 전간을 빈전으로 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마치 명성황후의 국장을 축소하고 감추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890년(고종 27)에 있었던 신정왕후 국장에서 태원전을 이미 빈전으로 사용하였고, 그 앞쪽 가까이 있었던 문경전을 혼전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궁궐의 안쪽에 빈전을 둔 것은 명성황후 국장의 특징이 아니라 이 시기 국장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⁶⁾

빈전은 대행왕이 대행왕후의 시신을 능에 매장하기 전까지 지상에 안치하는

5) 『효모전일기(孝慕殿日記)』 경인년(1890) 4월 17일.

6) 안경호, 「조선후기 빈전건축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22.

건물을 가리킨다. 승하 후 약 5개월 정도 시신이 머무는 이 빈전은 국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 공간이다. 조선시대 빈전이나 혼전으로 사용되는 궁궐의 전각은 상례만을 위해 조성된 특정한 건물이 아니다. 조선시대에는 ‘장례식장’이라 부를 수 있는 상례만을 위한 공간이 없었다. 살아서 생활하던 공간이 상황에 따라 망자를 위한 공간으로 바뀔 따름이다. 그리고 상례가 끝나면 상례 공간은 또 다시 생활공간으로 변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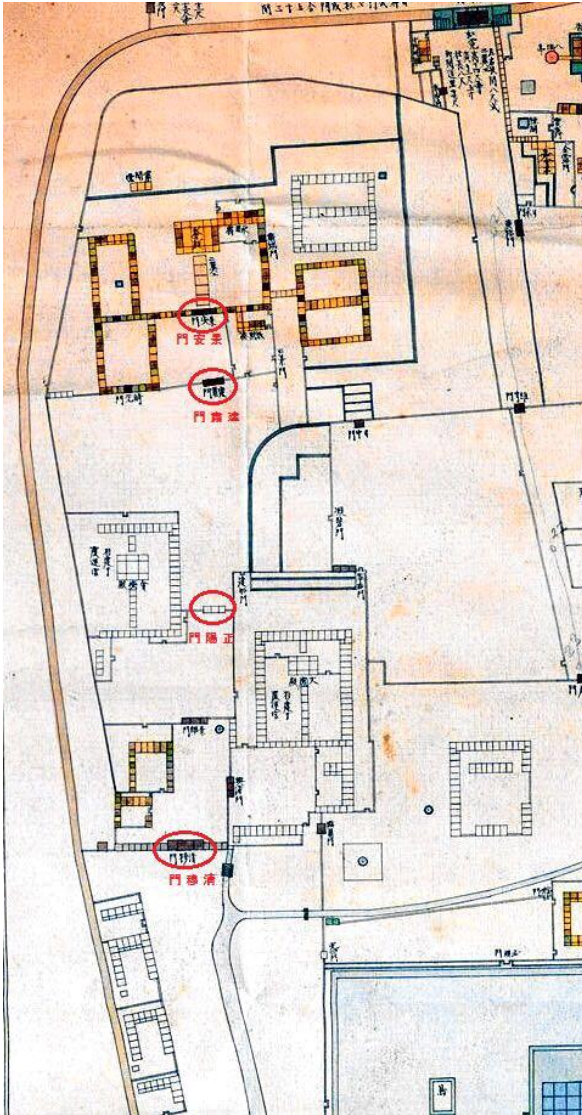
조선시대 국왕의 빈전으로는 편전(便殿)을 주로 사용하였다. 『국조오례의』에서는 국왕의 임종 공간을 경복궁의 사정전(思政殿)으로, 조선후기 『국조상례보편』에서는 선정전(宣政殿), 자정전(資政殿), 문정전(文政殿)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공간에 대하여 “사무를 보는 전각”이라 설명하였다.⁷⁾ 사정전, 선정전, 자정전, 문정전은 국왕이 일상적인 정무를 보는 편전(便殿)이었다. 『국조오례의』는 궁궐의 정전(正殿) 가까이 있는 이 편전을 국왕의 임종 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국왕들은 대부분 편전이 아니라 내전(內殿)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편전은 빈전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왕비의 국장에서는 내전(內殿)의 건물이 빈전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경희궁의 광명전(光明殿; 인목왕후, 선의왕후의 빈전), 융복전(隆福殿; 인선왕후, 인경왕후의 빈전), 창덕궁의 경훈각(景薰閣, 정성왕후의 빈전), 창경궁의 환경전(歡慶殿, 장렬왕후, 인현왕후, 정순왕후, 효의왕후, 순원왕후, 효현왕후의 빈전), 통명전(通明殿; 인원왕후의 빈전) 등이 빈전으로 사용된 건물이었다. 이들은 편전보다 궁궐의 안쪽에 있는 공간이지만 내전의 중심 전각으로 침전이나 연회를 거행하던 곳이다.

이 중에서 주목을 끄는 곳이 창경궁의 환경전이다. 정조 승하 이후 순조를 제외하고 국왕 역시 이곳을 빈전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19세기 들어와 국왕과 왕비 모두 환경전을 빈전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특정 건물이 흥례를 위한 공간으로 전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규모와 구조에서 환경전이 빈전으로 기능하기에 적합

7)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권 1, 「고명(顧命)」.

하였을 것이다. 빈전은 재궁(粹宮)을 두는 찬궁(欖宮)을 비롯하여 영침(靈寢)과



〈그림 1〉 명성황후 빈전 구성
 (「경복궁평면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영좌(靈座), 제상(祭床) 등을 설치하려면 내부가 넓은 건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루 다섯 번씩 음식을 올리기 때문에 주변 가까운 곳에 음식을 조리하고 배설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했다. 나아가 국장의 각종 의식을 실행하기 위해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했다.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상례의 공간으로 고정화되고 있었다. 이를 상례 공간의 고정화라 할 수 있다.

한편, 창경궁의 환경전이 빈전으로 전용된 것을 상례 공간의 주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시대 궁궐은 창경궁, 창덕궁, 경덕궁 등 여러 곳이 있었

다. 이들은 분리되어 독립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창경궁은 애초 세종이 상왕인 태종을 위해 지은 수강궁(壽康宮)의 터에 성종이 세조의 비 정희왕후(貞憲王后) 윤씨, 성종의 생모 소혜왕후(昭惠王后) 한씨, 예종의 계비(繼妃) 안순왕후(安順王后) 한씨를 모시기 위해 세운 궁궐이었다. 그러므로 백관이 조회하는 정전이나 국왕이 정사를 보는 편전의 건물이었지만 창경궁은 국왕 중심의 권력 질서로 규제하기 어려운 왕실 어른을 모시는 별전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창경궁에 빈전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정치의 중심 공간에서 상례가 벗어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국왕의 빈전이 창경궁으로 정해진 것은 이례적이었다. 선왕의 빈전을 자신이 기거하는 궐내에 두고 살아 있을 때와 같이 처소를 살피는 것은 사왕(嗣王)의 주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경복궁의 단일 공간에서 이해하면 빈전과 혼전이 궁궐의 북서쪽 후미진 곳에 마련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삶의 공간에서 죽음의 공간이 점차 멀어지고 감추어지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친일 세력의 의도와도 맞아떨어졌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왕후의 죽음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성왕후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자 했던 고종의 입장에서는 이곳이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후 국장의 반전은 빈전의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빈전인 태원전을 살펴보면 건물 앞쪽으로 긴 행각이 있고 그 앞쪽에 정문인 경안문(景安門)이 있다. 경안문 밖 동쪽편에 있는 공묵재(恭默齋)에 왕태자의 거려청(居慮廳)이 설치되었다. 경안문 밖에 건축문(建肅門)이 있고 그 서쪽에 기원문(綺元門)이 있다. 기원문의 동서 행각에 시릉관(侍陵官)과 봉시관(奉侍官)의 곡청(哭廳)이 설치되었다. 건축문 밖 넓은 뜰을 지나면 남쪽에 정양문(正陽門)이 있었다. 정양문 오른쪽에 혼전으로 사용할 문경전(文慶殿)이 있고 그 왼편에 회안전이 있었다. 그리고 정양문에서 더 내려오면 청목문(淸穆門)이 있었다. 이러한 문들은 안과 밖을 나누어 국장 동안 사람과 제물의 이동을 한정지었다. 예를 들어 빈전에 주요한 의식(儀式)이 있을 때 종척(宗戚)과 집사는 빈전의 남문에 해당하는 경안문 밖에 입참하였지만 외사(外司)의 관원들은 빈전과 멀리 떨어진

청목문 밖에 모여 곡하였다. 결국 문무백관의 대부분은 상례의 행사에서 청목문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⁸⁾

2) 빈전의 주요 의례

12월 3일(음 10. 17)에 대행왕비의 시신을 목욕시키고 습의(襲儀)와 소렴의(小斂儀)를 거행하였다. 그리고 12월 5일(음 10. 19)에 대렴 후 빈소(殯所)를 마련하고(성빈成殯), 12월 8일(음 10. 22)에 상복(喪服)을 입었다.[성복成服] 시신을 안치한 빈전에서는 여러 가지 의식이 거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망자에 대한 음식의 공례이다. 조선후기 『국조상례보편』에 의하면 조석전(朝夕奠)과 조석상식(朝夕上食) 그리고 주다례(晝茶禮)가 빈전에서 매일 망자에게 올리는 기본 의식이다.

전(奠)과 상식은 이를 준비하는 관서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조선시대 조석전과 주다례는 봉상시(奉常寺), 내섬시(內贍寺), 내자시(內資寺)의 세 관서가 돌아가면서 음식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갑오개혁을 그치면서 내섬시와 내자시는 혁파되고 봉상시만이 봉상사(奉常司) 명칭을 바꾸어 존속하였기 때문에 조석전과 주다례를 봉상사에서 전담하였다.⁹⁾ 봉상사는 국가 제사의 제물을 담당하던 관서이다. 봉상사 관원이 정양문 밖에 설치된 중배설청(中排設廳)에 음식을 준비하여 올리면 나배곡차비(羅排哭差備)가 이를 받들고 빈전의 정자각(丁字閣) 입구까지 들어갔다. 여기서 정자각은 빈전의 정전과 그 앞쪽 정면에 세로로 난 행각이 '정(丁)'자 모양을 이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행각은 빈전에 올리는 음식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 진설해두는 곳으로 제물진설행각(祭物陳設行閣)이라고도 부른다. 나배곡차비가 봉입한 음식을 설리 이하가 받아 행각의 배설상에 봉진하면

8) 『경효전일기』 을미년(1895) 10월 19일(음).

9) 『경효전일기』 을미년(1895) 10월 19일(음). 조석전의 찬물은, 약과(藥果) 3기, 병(餅) 2기, 수정과(水正果) 1기, 세면(細麪) 1기, 잡탕(雜湯) 1기, 전증(煎蒸) 1기, 실과(實果) 3기, 길경채(苦荳菜) 1기, 청주(淸酒) 1병 등이다. 이러한 구성은 『국조상례보편』의 규정과 동일하다. (『명성황후빈전혼전도감의궤』 1방의궤, 감선식監膳式 참조)

도설리가 이를 살피고, 설리주방이 점검하였다.

반면 상식은 궁중 내 음식을 담당하던 전선사(典膳司)에서 준비하였는데 일상적인 식사 시간에 맞추어 올렸다. 조석전이나 상식 모두 희생을 사용하는 제사(祭祀)와 대비되는 의식으로 망자를 아직 신도(神道)의 예로 대하지 못하는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이승에 대한 집착은 전의(奠儀)보다 살았을 때의 식사 형식을 모방한 상식이 더 강하였다. 조석상식(朝夕上食)의 숙설수라간(熟設水刺間)은 청목문 내 서쪽 행각에 있었다.¹⁰⁾ 여기서 만든 음식을 수라간 원역(員役)이 경안문을 통하여 정자각 층고까지 배진하면 설리가 이를 봉입하여 역시 도설리와 설리주방이 살피고 점검하였다.¹¹⁾ 그리하여 빈전에서는 매일 망자에게 조전(朝奠), 조상식(朝上食), 주다례, 석상식(夕上食), 석전(夕奠) 등 다섯 번의 음식을 올렸다.

그런데 『경효전일기』에 의하면 이 다섯 번의 의식 이외 매일 올리는 음식으로 두탕(豆湯)이 하나 더 있었다. 두탕은 팔죽을 가리킨다. 10월 22일 빈소를 조성한 날로부터 매일 영침에서 두탕을 올렸다.¹²⁾ 그리고 발인 후에는 능소에서 3년 상기가 끝날 때까지 두탕을 계속 올렸다.¹³⁾ 두탕은 파루(罷漏) 때에 올렸다.¹⁴⁾ 인정(人定) 때에 영침을 설치하고 파루 때가 되면 조곡(朝哭)을 하고 영침을 철거한 후 두탕 1그릇과 추청(追淸) 1그릇을 올렸다.¹⁵⁾ 그리고 두탕을 올릴 때에는

10) 『명성황후국훈등록』 을미년(1895) 10월 일, 빈전도감료(殯殿都監了).

11) 『명성황후국훈등록』 을미년(1895) 10월 일, 빈전도감료(殯殿都監了).

12) 『경효전일기』 을미년 10월 22일(음).

13) 『명성황후국훈등록』 을미년 10월 일, 빈전도감료(殯殿都監了).

14) 파루는 조선 시대에 서울에서 통행금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종각의 종을 서른세 번 치던 것을 가리킨다. 오경 삼 점(五更三點)에 종을 쳤으므로 지금 시간으로는 새벽 4시경이다. 참조로 일제시기에 있었던 고종 국장 때에는 저녁 10시, 순종 국장 때에는 저녁 11시에 두탕을 올렸다. 한편, 빈전과 산릉에 두탕을 올리는 것은 명성황후 국장 때 처음 거행된 것이 아니다. 조선후기 숙종대부터 이미 파루 후 수라간에서 두탕을 올렸다는 기록이 나온다. 다만 두탕의 기록은 『국조상례보편』에 보이지 않고 의례에 단편적으로 나오는 반면 『효녕전일기(孝寧殿日記)』, 『효명전일기(孝明殿日記)』 등과 같은 영전일기(靈殿日記)에 정례화되어 나타난다.

15) 『경효전일기』 을미년 10월 19일(음).

곡을 하였는데 이를 두탕곡(豆湯哭)이라 하였다.

한편 매달 삭일과 망일에는 별전(別奠)을 올렸다. 그런데 1895년 12월 30일(음 11. 15)에는 음력 11월 17일을 1896년 1월 1일(양)으로 정하고 연호를 건양(建陽)이라 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17일에 개원(改元) 고유문을 빈전에 올리고 정조제(正朝祭)를 거행하였다.¹⁶⁾ 양력의 사용으로 달의 주기에 맞춘 삭망전(朔望奠)은 폐지되었다. 삭전(朔奠)은 양력을 기준으로 매달 1일에 올렸고 망제(望祭)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하지만 『경효전일기』에 의하면 음력의 삭일과 망일에는 별다례(別茶禮)라는 이름의 의식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음력과 양력이 혼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주다례(晝茶禮)와 삭망의 별다례 외 명절날에도 다례가 있었다. 아관파천 이후 명성황후의 상례가 중단되어 재궁이 빈전에 머문 시기가 길어졌다. 그리하여 빈전에서 세시의 여러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런 날에는 빠짐없이 다례가 있었다. 한식다례(寒食茶禮), 팔일다례(八日茶禮), 단오다례(端午茶禮)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경효전일기』에 의하면 석가탄신일인 초파일에 다례를 거행하고 빈전 건물 내에 진주등(眞珠燈) 1쌍, 좌등(坐燈) 1쌍, 영침(靈寢) 사이에 좌등 1쌍, 정자각 동서 침하와 정진 동서 침하, 영사재(永思齋) 앞 처마에 양각등(羊角燈)와 유리등(琉璃燈) 75쌍을 달았다.

그리고 매달 제철 음식을 올리는 천신(薦新)을 종묘의 예에 따라 빈전에서도 거행하였다. 이렇게 빈전에 음식의 올리는 것은 망자를 산 사람처럼 공양하는 상징적 행위였다. 그런데 천신의 물종을 준비하는 방식은 이전과 달랐다. 조선시대에 천신은 각도(各道), 각읍(各邑), 각사(各司)에서 공물로 봉진하였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 때 공물의 진상을 혁파하였기 때문에 공물로서 천신을 준비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종묘이 수복이 회계원(會計院)에서 비용을 받아 구매하여 혼전과 농소에 보내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¹⁷⁾

그 외 빈전의 주요 의식으로 재궁의 가칠(加漆)과 진향(進香)을 들 수 있다. 재궁의 표면에 옷칠을 더하는 가칠은 재궁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벌레를

16) 『경효전일기』 을미년 11월 17일(음).

17) 『명성황후국훈등록』 을미년 10월.

물리치기 위한 기능적인 작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거행할 때 문무백관이 모이고 시신에 예를 표하는 행동들이 명문화되면서 가칠은 조선후기 빈전의 주요 의식으로 되었다. 명성황후 빈전에서 재궁의 가칠을 살펴보면 은정상(銀釘上) 가칠을 10회, 칠포상(漆布上) 가칠을 15회, 전체 가칠을 5차례 하였다.¹⁸⁾ 1896년 1월 5일(음 11. 21)에서 1월 9일(음 11. 25)까지 5차례의 전체 가칠 때에는 백관이 모여 곡하여 그 죽음을 애도하였다. 그리고 1월 10일(양)에는 왕태자가 재궁에 '土'자를 직접 쓰고, 12일에 재궁의 주변을 끈으로 묶었다.

초기 명성황후 국장 진행에 나타나는 특징은 관원과 종친의 회동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억압적 구조는 진향의 축소에서 알 수 있다. 빈전은 망자에게 음식을 올리는 곳일 뿐 아니라 망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는 공간이었다. 조선시대 이러한 모임 중 대표적인 것이 진향의식이다. 진향은 주체에 따라 관진향(官進香)과 사진향(私進香)으로 구분되었다. 관진향은 의정부(議政府), 종친부(宗親府), 의빈부(儀賓府), 그리고 각도별 지방관들이 빈전에 모여 향을 올리는 의식이다. 지방에서는 각도의 감사(監司)와 유수부(留守府)의 유수(留守)가 참여하였다.¹⁹⁾ 그 외 왕실과 종친의 사진향도 자주 있었다. 그러나 명성황후 국장에서는 경외(京外)의 관제가 바뀌었다는 핑계로 궁내부와 내각에서만 진향을 행하였다.²⁰⁾ 궁내부는 1월 24일(음 12. 10) 오시에 궁내부 대신 이재면(李載冕)이 건축문(建肅門) 밖에서 무릎을 꿇고 향축을 전하였고, 내각은 1월 27일(음 12. 13)에 총리대신 김홍집이 건축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향축을 전하였다. 이렇게 관리들의 진향은 빈전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중문(中門) 정도의 거리에서 향축을 전하였다. 기타 지방관과 종친의 진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18) 『명성황후빈전훈전도감의궤』 일방의궤(一房儀軌), 진칠배일(進漆排日).

19) 실제로는 이들이 빈전의 진향에 모두 참여한 것은 아니다. 조선후기를 기준으로 하면 빈전의 진향 때에는 경기 감사와 개성부 유수, 그리고 강화부 유수만 참여하였다. 나머지 도의 감사는 지방에서 도사(都察)나 품계가 높은 수령이나 차관(次官)으로 하여금 진향을 대신하게 하였다. 이것은 신하된 자로 국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을 표현해야 하지만 왕권의 승계로 인한 불안한 정국을 당하여 각 지역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보아진다.

20) 『승정원일기』 고종 32년 11월 30일(병인).

이는 대행왕후의 죽음과 그에 대한 애통과 분노가 확산되기를 바라지 않는 당시 내각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었다.

3. 아관파천과 국장의 전환

1896년 2월 11일(음 1895.12.28) 고종이 왕세자와 함께 경복궁을 벗어나 러시아 공간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 아관파천은 국장에서 새로운 국면의 전환을 가져왔다. 아관파천 이후 곧바로 고종은 조칙을 내려 8월의 변고와 사망 후 석 달 동안이나 반포하지 못한 것들이 만고에 없는 일이라고 개탄하고 왕후를 폐위하였던 지난 조칙을 역적들이 위조한 것이라며 취소하였다.²¹⁾ 그리고 을미사변의 주모자를 처단하고 그들에 의해 진행되던 국장을 왕실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이후 김홍집 내각은 붕괴하였지만 국왕은 곧바로 환궁하지 않고 러시아 공관에 머물면서 국정과 국장을 조율하였다. 1896년 3월 10일(음 1. 27)에 국장도감, 빈전혼전도감, 산릉도감의 공역을 중단시켰다. 아관파천 이후 고종과 왕태자는 경복궁에 있는 빈전으로 나갈 수 없었다. 이에 빈전에서 모든 제전(祭奠)은 섭행으로 거행되었다. 다만 특정한 날 제문을 고종이 직접 지어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리고 1896년 4월부터는 세자를 보좌하는 춘방(春坊)의 입직 관원이 매일 빈전의 찬공을 살피고 왕태자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1896년 7월 24일(음 6. 14)에 고종은 갑오개혁 때 이루어진 국가 제사의 축소를 비판하며 종묘와 왕실 의례들을 이전으로 회복하고, 원구, 사직 등의 제사를 현재의 형편과 예법에 따라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²²⁾ 이러한 변화는 국장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쳤다. 건양으로 연호를 바꾼 이후 양력을 기준으로 하던 삭전을 폐지하고 음력에 맞추어 삭망제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백관들을 이때에 참석하도록 하였다.²³⁾

21) 『고종실록』 고종 33년 고종 2월 11일.

22) 이육, 「근대 국가의 모색과 국가의례의 변화 - 1894~1908년 국가 제사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95(2004): 69.

23) 『경효전일기』 병신년(1896) 6월 14일(음).

이와 더불어 시해의 주역에 의해 주도되던 국장을 중단하고 왕실의 입장에서 다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 시작이 새로운 정전(正殿)으로 삼은 경운궁(慶運宮; 현 덕수궁)으로 빈전을 옮기는 것이었다. 1896년 8월 23일(음 7. 15)에 열성의 어진을 봉안한 선원전을 경운궁 별전으로 옮길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빈전이 떨어져 있어서 동궁이 애도의 마음을 제대로 펼 수 없었다며 빈전을 경운궁으로 옮기도록 하였다.²⁴⁾ 당시 재궁과 혼백을 경복궁에서 경운궁으로 옮기는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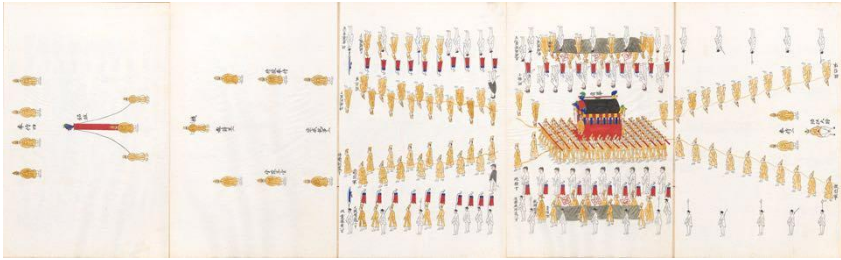
9월 3일(음 7. 26) 빈전에 특진관(特進官)을 보내어 찬궁을 열고 빈전을 올린다는 사실을 고하였다. 그리고 이 날 신시(申時, 오후 3~5시)에 찬궁을 열어 재궁을 꺼내고 별다례를 올렸다. 다음날 9월 4일(음 7. 27)에 주다례와 함께 재궁의 출발을 알리는 고유별전을 섭행으로 거행하고, 미시(未時, 오후 1~3시)에 신백(神帛)을 신연(神輦)에 싣고 태원전을 출발하였다. 이때에 충호사인 조병세가 여재궁관(昇梓宮官)과 내외 차비관들을 이끌고 빈전에 들어와 재궁을 받들어 나왔다. 경안문(景安門), 건숙문(建肅門), 정양문(正陽門)을 지나 경유문(景維門) 밖에서 재궁을 견여(肩輿)에 싣고 광화문을 통과하여 경운궁으로 나아갔다. 고종이 최복을 입고 곡을 하며 재궁을 맞이하여 경소전(敬昭殿)에 재궁을 안치하였다.²⁵⁾ 당시 경복궁에서 경운궁으로 빈전을 옮기는 과정은 반차도의 형식으로 남아있는데 그 행차는 국장의 발인을 연상시켰다.²⁶⁾

경소궁은 경운궁의 편전으로 정전인 중화전(中和殿) 오른쪽에 있었다. 경복궁 후미진 곳에 있었던 이전과 달리 경운궁의 빈전은 궁궐의 중심을 차지하며 황후를 추모할 수 있게 되었다. 국장(國葬)이 국정(國政)의 중요한 일이 된 것이다.

24) 『경효전일기』 병신년 7월 15일(음).

25) 『경효전일기』 병신년 7월 27일(음). 경소전은 현재 덕수궁의 덕홍전 자리에 있던 전각이다. 명성왕후의 빈전과 혼전으로 사용되었지만 1904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명성왕후 신주는 준명전의 서쪽 행각으로 임시로 옮겨졌다가 수풍당에 봉안되었다. 경소전의 자리에 다시 건물이 지어졌지만 혼전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1912년에 고종의 알현실로 사용되면서 덕홍전으로 전호를 바꾸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덕홍전)

26) 『빈전이봉경운궁시반차도 명성황후발인반차도(殯殿移奉慶運宮時班次圖 明成皇后發輶班次圖)』(장서각 소장, K3-550)



〈그림 2〉 명성왕후 빈전을 옮길 때 견여 모습(『빈전이봉경운공시반차도』)

한편, 1896년 9월 26일(음 8. 20)은 대행왕후의 사망 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일반적인 국장인 경우 1주기가 되는 때에는 상례가 마무리될 시점이다. 국왕이 생존한 상태에서 왕비가 승하하였을 때에는 11개월이 되면 연제(練祭)를 지내고 첫 기일을 맞이하여 상제(祥祭)를 지낸다. 그리고 15개월이 되면 담제(禫祭)를 지내어 상례를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첫 기일이 다가오는데 발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맞이한 기일에 고종은 별전의 첫 잔을 직접 올리고,²⁷⁾ 왕태자가 아현, 의정대신 김병시(金炳始)가 종헌의 술잔을 올렸다. 왕태자비(王太子妃)와 군부인(郡夫人)이 곡하였고, 백관들은 숙목문(肅穆門) 밖에서 곡하며 사배(四拜)하였다. 그리고 조상식(朝上食)에는 고종이 직접 잔을 올렸고, 주다례와 석상식에서는 왕태자가 잔을 올렸다. 다시 석전 때에는 국왕이 직접 잔을 올렸다. 각 전과 상식 때 백관들도 참여하여 대행왕후를 추모하였다. 그리고 상복을 입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1896년 10월에는 상복을 계속 입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논의 가운데 박인환이 주청한 ‘원수를 갚기 전에는 상복을 벗지 않는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²⁸⁾ 그리고 이러한 복수론은 고종의 전제권 강화로 나아갔다.²⁹⁾ 11월 19일(음 10.15)에는 추복별전(追服別奠)을 거행하였다.³⁰⁾

27) 『경효전일기』 병신년 8월 20일(음).

28) 『고종실록』 고종 33년 10월 23일.

29) 한영우, 『명성황후와 대한제국』(서울: 효형출판, 2001), 82.

30) 『경효전일기』 병신년(1896) 10월 15일(음).

그러나 국장이 지연되어 재궁이 빈전에 오래 머물수록 금령에 의해 국정이나 관민의 생활이 어렵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발인 전이라도 나라의 제사를 거행하고 사가(私家)에서도 미처 마치지 못한 장례를 할 수 있게 하였다.³¹⁾

1896년 11월 1일(음 9. 26)에 고종은 새로운 산릉의 장소를 찾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양주의 청량리에 새로운 능지를 정하고,³²⁾ 1897년 2월 26일(음 1. 25)부터 산릉의 공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1897년 1월 6일(음 1896. 12. 4)에는 왕후의 시호를 다시 정하였다. 대행왕후의 시호, 능호, 전호는 1895년 10월 22일(음)에 이미 순경(純敬), 숙릉(肅陵), 덕성(德成)으로 정해졌다.³³⁾ 그러나 의정부 찬정 김영수가 상소에서 대행왕후의 공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시호를 제대로 올려야 하는데 이를 김홍집이 주관하여 절차도 올바르게 않았고 훈령도 즐겨 받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정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고종은 대행왕후의 시호를 문성(文成), 능호를 홍릉(洪陵), 전호를 경효전(景孝殿)으로 새로 정하였다.³⁴⁾ 문성은 ‘온 천하를 경륜하는 덕을 갖추었다’는 뜻의 문(文)과 ‘예악을 밝게 갖추고 있다’는 뜻의 성(成)을 합친 것이다.³⁵⁾ 그러나 이후 문성은 정조의 시호와 동일하다고 하여 ‘명성(明成)’으로 또 다시 고쳤다. 명(明)은 ‘사방을 밝게 내리 비친다’는 뜻이다.³⁶⁾

왕후의 죽음을 잊지 않고 복수의 감정을 확산시키는 데에 중요한 의식 중 하나가 진향이었다. 1897년 2월 20일(음 1. 19)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27일(음 1. 26)에 궁내부 진향을 시작으로, 의정부, 종정원(宗正院), 귀족원,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황해도,

31) 『경효전일기』 병신년(1896) 11월 4일(음).

32) 『경효전일기』 병신년 12월 초4일(음).

33) 『고종실록』 고종 32년 10월 22일

34) 『고종실록』 고종 34년 1월 3일.

35) 『고종실록』 고종 34년 1월 6일.

36) 『고종실록』 고종 34년 1월 6일; 고종 34년 3월 2일. 대행왕후의 시호를 다시 정할 때 처음엔 ‘문성(文成)’으로 하였으나 대수가 멀지 않은 정조와 동일하여 ‘명성(明成)’으로 변경하였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진향을 거행하였다.³⁷⁾ 갑오개혁으로 생겨난 내각이 다시 폐지되고 정부 조직이 의정부를 중심으로 재정비됨에 따라 의정부 진향이 다시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경복궁 빈전에서 생략하였던 지방 관원의 진향을 거행토록 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황후의 죽음이 가져다준 비통한 마음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여론이 황제에게로 결집되는 통로가 되었다. 이와 같이 고종은 아관파천을 통해 정세를 전환한 이후 그 동안 부당하게 진행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을 폐지 또는 수정하여 국장을 새로 시작하였다.

4. 대한제국의 선포와 황후의 국장

1) 황후의 책봉

1897년 10월 12일(음 9. 17) 고종은 환구단에 나아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나아갔다. 이로써 조선은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이러한 대한제국의 성립은 개항 이후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자주와 근대를 성취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 전략이었다. 이 개혁이 이전과 다른 점은 근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혁의 주체를 군주에 둔 점이다. 아관파천 이후 일본의 강압에서 벗어난 고종은 왕정을 회복하여 자주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나갔으며, 이때에 이르러 대한제국으로 국체와 국호를 바꾸고 황제에 즉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의 성립은 대행황후에 대한 존승으로 이어졌다.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고종은 곧바로 대행황후를 황후로 책봉하였다. 황제의 명을 받은 의정대신 심순택 등이 금책(金冊)과 금보(金寶)를 받들어 빈전의 융안문(隆安門) 밖에 이르면 봉사관(奉侍官)이 이를 받아 차비관에게 전하여 빈전 내로 봉입하여 올렸다. 황후로 책봉한 후 고종은 평천관을 쓰고 면복을 입고 황후에

37) 『명성황후빈전혼전도감의례』 장예원내조(掌禮院來照) 정유년(1897) 12월 14일(음).

게 재배하였으며 황태자도 평천관에 면복을 갖추고 사배하였다.³⁸⁾

황후로 책봉을 마치자 빈전의 의장은 황색(黃色)으로 바뀌었다. 찬궁 내 양장(仰帳)은 황색 바탕에 봉황과 구름이 그려진 것으로 바뀌었고, 재궁을 덮는 소금저(素錦絙) 역시 황사(黃紗)로 고쳐 도배하였고, 대관의(大棺衣)은 황색 대공단(大貢緞)으로 바뀌고, 반월상(半月床) 복건(覆巾), 의자복(椅子袱), 영악(靈幄)의 복건과 휘장 등도 황색(黃色)이 되었고,³⁹⁾ 찬궁의 휘장, 신문(神門)의 휘장 역시 황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명정을 “효자원성정화합천대행황후재궁(孝慈元成正化合天大行皇后梓宮)”이라 고쳐 썼다. 이렇게 의장을 통해서 황후의 지위는 구체화되었다.

10월 15일(음 9.20)에는 국장 일정을 다시 정하였다. 10월 22일에 고종은 황후의 능소에 나아가 영결함으로써 비통함 마음을 풀겠다며 그에 따른 의식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⁴⁰⁾ 그리고 11월 5일(음 10.11)에는 태극전(太極殿)에 나아가 황후에게 ‘명성(明成)’이란 시호를 내리고 사신(使臣)을 보내어 빈전에 시책보(諡冊寶)를 올렸다.

나라의 운수가 수차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황후가 대처한 것은 경도(經道)와 권도(權道)에 모두 합치하였다.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태평스러운 상황을 회복시키는 데에 도운 것이 더욱 넓고도 컸도다. 어찌 주액(肘腋)⁴¹⁾의 가까운 곳에서 변란이 일어날 줄 생각했겠는가? 순식간에 윤리와 기강이 무너졌도다. 무전(婺躑)⁴²⁾의 별이 광채를 잃었으니 짐의 마음이 통탄스럽고 왕세자가 울부짖으니 만백성이 슬픔에 빠졌다. 나라의 치욕을 아직 씻지 못하였으니 신민들이 복수하려는 마음이 간절하건만 예제의 기한이 지났으니 시초점으로 봉분을 올린 날을 점쳤다. 황후가 중흥의 대업을 빛나게 도왔기에 자주의 권리를 얻을 수 있었

38) 『경효전일기』 정유년 9월 17일(음)

39) 『경효전일기』 정유년 9월 17일(음).

40) 『국장도감의궤』 조칙(詔勅), 정유년 10월 22일

41) 주액(肘腋): 팔꿈치와 겨드랑이로, 매우 가까운 곳이나 관계를 이른다.

42) 무전(婺躑): 무수(婺宿)로, 여성의 운수를 관장하는 별이다.

다. 이에 나는 하늘의 돌보심을 입어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니, 왕후는 끈도를 본받아 나와 짝하여 존숭의 칭호를 받아야 한다.⁴³⁾

위 책문은 명성황후에 대한 고종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동반자로서의 황후가 보여준 총명함과 죽음에 대한 허망함, 분노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복수의 감정을 자주를 위한 노력으로 전환시키고 그 공을 황후에게 돌렸다. 이에 명징(銘旌)을 “효자원성정화합천명성황후재궁(孝慈元成正化合天命成皇后梓宮)”이라고 다시 썼다.

2) 발인(發殯)과 의장(儀仗)

대행왕후를 황후로 승격시킨 후 11월 21일(음 10. 27)에 비로소 고종은 발인하였다. 이에 앞서 11월 18일(음 10. 24)에 환구단, 종묘, 사직, 경모궁에 발인할 것을 아뢰는 고유제를 거행하였다. 그리고 11월 21일 새벽에 황제는 빈전에 나아가 해사제(解謝祭)를 거행하였다. 이어서 견전의(遣奠儀)를 마치고 재궁을 견여로 인화문 밖으로 옮긴 후 대여에 실었다. 황제가 곡으로써 이별을 고하고[哭訣] 황태자가 봉사(奉辭)한 후 대여가 능소로 출발하였다.

43) 『명성황후시책문(明成皇后諡冊文)』(장, K2-4048), “迨邦運存遭艱險, 而后度處合經權. 轉危回泰, 裨益弘多. 豈意肘腋變起, 遽忽倫綱窳墮. 婺躔斂彩, 朕心慟悼; 貳極攀號, 萬姓含哀. 國讐未雪, 臣民切枕戈之心; 禮制過期, 龜筮叶復土之吉. 后光贊重恢之業, 得有自主之權. 朕乃受天眷而進登大位, 后其體坤道而儷尊崇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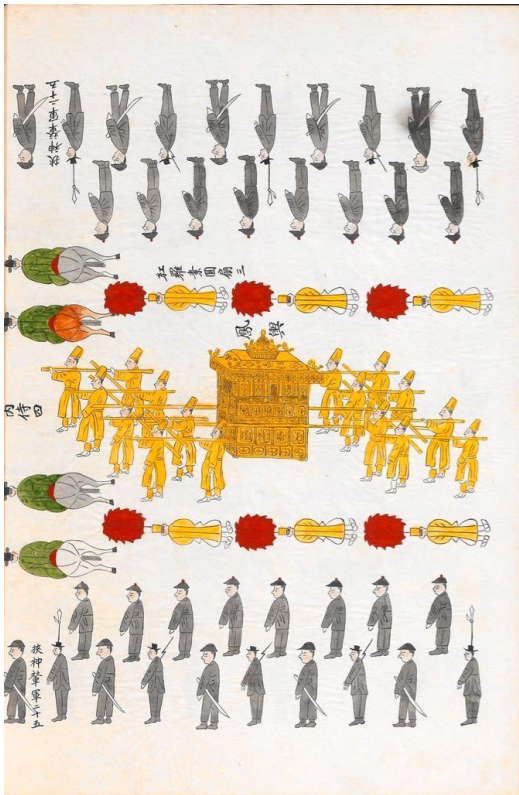
〈표 2〉 명성황후 국장시 발인 반차 도식

| | | | | | | | | | | | | | | | | | | | |
|----|-----|-----|----|-----|------|----|----|------|----|----------------|-------|----------------------|----|-----|----------------|------|------|----|-----|
| | | 吉儀仗 | | | 禁軍 | | | | | 凶儀仗 · 輓章 | | 侍衛隊 火鐵燭籠· 執鐸護軍 | | 輓章 | 西班 | | | | |
| 導駕 | 先射隊 | 鼓吹 | 冊寶 | 吉儀仗 | 神帛腰輿 | 籠亭 | 侍御 | 前部鼓吹 | 神輦 | 後部鼓吹 | 副葬品彩輿 | 肩輿 | 籠亭 | 哭宮人 | 髮扇 大輿 髮扇 | 侍衛官員 | 都監官員 | 軍部 | 後射隊 |
| | | 吉儀仗 | | | 禁軍 | | | | | 凶儀仗 · 輓章 | | 火鐵燭籠· 執鐸護軍 侍衛隊 | | 輓章 | 東班 | | | | |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 95쪽, 〈표20, 발인반차도의 구조〉의 표 변경 사용)

발인은 대행황후와 신민(臣民)이 만나는 시간과 공간이었다. 당시 발인 행차는 경운궁의 인화문을 나와서 중묘 앞을 지나서 흥인문(興仁門)을 통해 도성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관왕묘 앞을 지나 보제원(普濟院)에서 노제를 지냈다. 노제는 능소까지 가지 못하는 관원과 백성들이 올리는 송별의식이다. 성문밖에 노제소에서 도성에 남는 관원과 백성들이 상여를 기다렸다가 대여가 이르면 황장막차(黃帳幕次)에 신주를 봉안하고 부복하여 곡하고 4배하였다.

한편, 발인의 행렬은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황후의 위엄을 유감없이 드러내었다. 더욱이 대한제국의 성립 이후 처음으로 거행되는 국장은 이전에 보지 못한



〈그림 3〉 「명성황후발인반차도」에 나타난 봉여(鳳輿) 모습

황제국의 의장으로 모든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표 1〉는 《명성황후국장도 감의례》에 실린 반차도를 기준으로 국왕의 발인 반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행렬의 반차는 “선도관원 - 시위군사 - 길의장(의장 - 책보) - 홍의장(의장-부장품) - 상여(견여-대여) - 관원(시위관원 - 담당관원-배종관원) - 시위군사”의 순서로 구성된다. 행렬의 제일 앞쪽에는 행차를 인도하는 지방관, 경기도관찰사, 해당 지역 경무관 등이 등장한다. 그 뒤로 선사군(先射隊)가 깃발을 앞세우고 대장을 따라 열을 맞추어 나아간다.

특히 대대기(大隊旗)는 태극기 모양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행차의 뒤쪽에는 선사대와 짝하여 후사대(後射隊)가 있다. 선사대와 후사대 사이의 행렬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부분은 길의장에서부터 신연(神輦) 뒤쪽의 후부고취(後部鼓吹)까지이다. 둘째 부분은 부장품을 실은 채여에서부터 재궁을 실은 대여(大輿)까지이고, 세 번째는 대여 이후의 행렬이다.

이 중에서 조선시대 왕비의 반차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길의장(吉儀仗)이다. 행렬의 첫 번째 부분은 황후의 지위를 나타내는 길의장으로 꾸며진다. 앞쪽과 뒤쪽에 고취가 있다. 이 길의장의 최종은 혼백(魂帛)을 실은 신연(神輦)이다. 대

행 대왕의 혼령을 상징하는 혼백(魂帛)이 살아 있을 때 자리하였던 가마를 타고 있는 것이다. 신연 앞쪽에는 국왕이 그 동안 받았던 책보와 교명 등의 앞서고, 그 뒤로 길의장이 길게 늘어서고⁴⁴⁾ 신백요여(神帛腰褭), 용정(龍亭)이 나오고, 마침내 전부고취와 후부고취를 앞뒤로 대동하고 신연이 등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황새 봉여(鳳輿)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봉여는 천자가 타는 수레로서 이 행렬의 주인이 천자국의 황후였음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상징물이었다. 이러한 봉여를 비롯하여 왕구봉개(黃九鳳蓋) 등의 황후 의장은 청대 완성된 『황조예기도식(皇朝禮器圖式)』의 것과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⁴⁵⁾

3) 왕릉의 조성

명성황후의 능은 현재 남양주시에 있다. 그러나 이곳은 1919년 고종의 국장을 치르면서 옮긴 것이다. 1895년 10월 명성황후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 처음으로 정한 능지는 동구릉에 있는 숭릉(崇陵, 현종과 明聖王后의 능)의 오른쪽 언덕이었다. 그러나 1896년 1월 28일(음력)에 세 도감의 공역을 중단하면서 산릉의 조성도 중단되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청량리에 봉표를 다시 세우고 조성

44) 당시 새로 만든 의장은 다음과 같다. 봉여(鳳輿), 홍장(紅杖) 1쌍, 청도기(淸道旗) 1쌍, 황휘(黃麾) 2명(柄), 강인번(絳引旛) 6명, 전교번(傳敎旛) 4명, 고지번(告止旛) 4명, 신번(信旛) 4명, 용두간수창(龍頭竿繡纓) 10명, 의굉창(儀鎗纓) 10명, 과창(戈纓) 10명, 극창(戟纓), 오장(吾杖) 6명, 입과(立瓜) 6명, 와과(臥瓜) 6명, 의도(儀刀) 6명, 반검(班劍) 6명, 등장(鎧杖) 6명, 금술(金鉞) 6명, 골타(骨朶) 6명, 향절(響節) 12명, 우보당(羽葆幢) 4명, 자방술(紫方率) 2명, 홍방술(紅方率) 2명, 황소금술(黃銷金率) 1명, 황수곡명술(黃繡曲柄率) 2명, 홍수술(紅繡率) 1명, 홍소원술(紅素圓率) 2명, 화개(華蓋) 2명, 홍수치방선(紅繡雉方扇) 6명, 홍수화원선(紅繡花圓扇) 6명, 청수방선(靑繡方扇) 6명, 홍라소원선(紅羅素圓扇) 12명, 황라소원선(黃羅素圓扇) 12명, 불진(拂塵) 2명, 홍사등룡(紅紗燈籠) 1쌍, 홍유지등룡(紅油紙燈籠) 1쌍, 심등(鮫燈) 1쌍, 금교의(金交倚) 1좌, 금각담(金脚踏) 1좌, 구봉곡개(九鳳曲蓋) 1명, 구봉개(九鳳蓋) 10명, 용봉기(龍鳳旗) 10명, 용봉원선(龍鳳圓扇) 8명, 난봉방원선(鸞鳳方圓扇) 8명, 금절(金節) 1명, 독(蠶) 1명, 제로(提爐) 1좌, 향합(香盒) 1좌, 관합(盥盒) 1좌, 타호(唾壺) 1좌, 대수병(大水瓶) 1좌, 소수병(小水瓶) 1좌, 타우(唾盂) 1좌, 마계(馬機) 1좌.

45) 박계리,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명성황후발인반차도> 연구』, 『미술사논단』 35(2012), 109.

하였다. 1897년 2월 28일 봉표처 안에 유해가 나오에 따라 봉표처를 우측으로 옮겨 새로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후 국장이 여러 번 연기됨에 따라 왕릉의 조성 역시 미루어졌다가 11월 7일(음 10. 13)에 금정을 열고 광을 파기 시작하여 준비를 마치고, 11월 22일(음 10. 28)에 재궁을 안치하고 봉분의 조성을 마무리하였다. 흥릉의 석물은 조선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⁴⁶⁾

다만 흥릉의 조성에서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침전(寢殿)이다. 조선시대 왕릉의 제향 공간을 정자각이라 불렀다. 이는 위에서 바라볼 때 ‘丁’자와 같은 모양을 이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건물은 가로로 일자형인데 가운데에 지붕을 전면으로 내어서 행랑과 같이 만든 것이다. 앞쪽으로 돌출된 곳을 배위청(拜位廳)이라 불렀다. 정자각은 장례를 치를 때에는 빈전으로 사용된다. 능에 도착한 재궁은 이곳에 거처하였다가 뒤편 봉분이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된다. 1897년 3월 27일(음 2.25)에 고종은 정자각을 『국조오례의』의 예를 따라 ‘침전(寢殿)’이라 부를 것과 그 제도를 5칸의 건물을 짓되 배위청을 정전 안에 설치하도록 하였다.⁴⁷⁾ 그리하여 좌우 5칸에 전후 4칸의 사각형 건물이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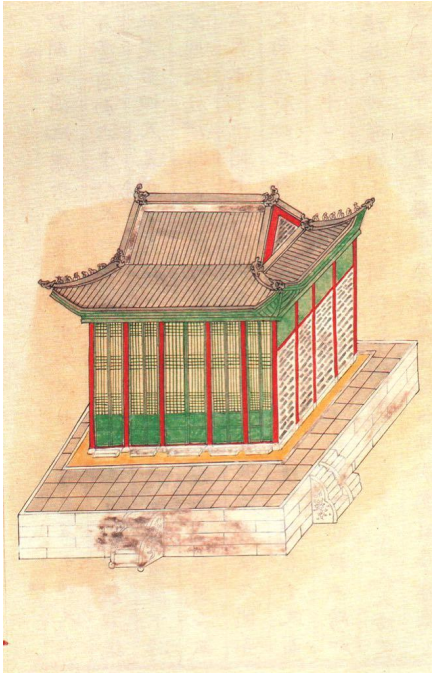
침전은 외관상의 변화만 보인 것이 아니다. 내부에 당가(唐家)를 설치하였다. 침전은 재궁이 있을 때에는 빈전으로서 찬공, 영좌, 영침을 갖추었다. 그러나 재궁을 헌궁에 안장한 후 침전은 제사 공간으로 남는다. 조선시대에 정자각에서는 북쪽에 평상을 두고 그 앞에 제상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흥릉의 침전에는 당가(唐家)를 설치하였다. 당가는 궁궐의 어좌 또는 사찰의 불단 위에 집모양으로 조형된 건축물을 말한다. 대개 당집은 천장에 설치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침전의 당가는 바닥에 정지대석을 깔고 탐(榻)을 설치한 후 그 위에 기둥을

46) 현재 흥유릉에 조성된 석물은 조선시대의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도 석물의 위치와 종류가 서로 다르다. 조선시대에 석수는 봉분의 주변에 조성되었다. 봉분의 주변 곡장 안쪽에 석호와 석양이 있고, 봉분 앞쪽에 망주석과 석등이 있다. 그리고 봉분과 정자각 사이에 문인석, 무인석, 석마가 있다. 그러나 현재 흥릉은 석수(石獸)가 모두 침전과 홍살문 사이에 있다. 그리고 문인석과 무인석, 기린, 코끼리, 사자, 해태, 낙타, 말의 석수가 좌우로 도열해있는 모양이다. 이러한 모습은 1919년 고종의 국장 때 만들어진 것이다. 명성황후의 능은 이때 이장하여 고종의 능에 합장되었다.

47) 『흥릉산릉도감의궤』 조칙, 정유년 2월 25일(음).

세워 지붕을 얹은 사각형의 집이다. 안에는 황금색의 신어상(神御床)을 두었다.

앞서 살핀 발인의 행차가 이곳 홍릉에 도착하자 재궁을 침전으로 모셨다. 이때



〈그림 4〉 홍릉의 침전
 (『명성황후홍릉산릉도감의궤』,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에 침전은 재궁을 안치한 빈전이 되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날인 11월 22일(양)에 재궁을 능에 안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국왕이 왕릉까지 나아간 것이다. 애초 영결식은 인화문 밖에서 거행할 예정이었다.⁴⁸⁾ 황태자 역시 궐문 밖에서 봉사(奉辭)하고 궐에 머물다가 반우할 때에 성문 밖으로 나아가 지영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발인 때가 가까워져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후와 자신의 정리(情理)가 만고에 없던 것이며, 비통하고 애도하는 마음을 간략하나마 펼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며 황태자와 함께 능소까지 나아가 영결식을 거행하였다.

또 하나는 각국 공사(公使)나 영사(領事)의 참례식(參禮式)이다. 전통적인 국장은 만 27개월 또는 13개월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근대적 의미의 장례식이 별도로 있지는 않았다. 상례의 절차는 상주(喪主)의 입장에 맞춘 것이다. 그 외 조문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개항 이후 타국과 외교 관계를 가지는 이런 가운데 국장은 외교의 장이 되었다. 당시 각국 공사 또는 영사들은

48) 『고종실록』 고종 34년 4월8일.

발인하는 날에 인화문 밖에서 대여를 지송(祗送)하는 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당일 오후 2시에 국왕을 따라 청량리 산릉까지 와서 하룻밤을 묵은 다음 재궁이 산릉에 올라갈 때 거행하는 제전에 참여하였다. 이를 위해서 능소에 외국 공사와 영사가 묵을 가가(假家) 45칸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하였다.⁴⁹⁾

한편, 재궁을 현궁에 안치하는 장면이 『경효전일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산릉 빈전에서 천전(遷奠)을 거행하고 소여(小興)에 재궁을 싣고 현궁으로 내려가는 입구(수도각隧道閣)에 까지 갔다. 수도각에서 퇴광 위에까지는 재궁을 윤평상(輪平床)에 올려 옮겼다. 재궁 위 황금저(黃錦褚)를 제거하고 재궁가에 묶었던 끈을 풀었다. 의정대신 심순택과 종척(宗戚) 집사가 수건으로 재궁을 닦은 다음 별축로(別軸輻)를 이용하여 재궁을 퇴광에 내렸다. 정광에 넣기 전에 유(遺衣) 중 황색 1벌, 홍색 1벌, 청색 1벌을 재궁 위에 놓은 다음 흑색, 녹색, 청색, 홍색, 황색의 순서대로 구의(柩衣)를 덮었다. 그리고 좌우에는 운삽(雲鬘)을 먼저 놓고 그 위에 용삽(龍鬘), 보삽(黼鬘), 불삽(黻鬘)을 차례로 올려놓았다. 진시(辰時, 오전 7~9시)에 의정대신이 퇴광에 내려가 재궁을 수건으로 닦은 다음 장생전 제조 조병필이 재궁 아래 산운(散輪)을 밀어 재궁을 정광(正壙)안으로 넣었다. 그리고 애책(哀冊), 증옥백(贈玉帛)을 퇴광 서쪽 가에 두었다.⁵⁰⁾ 그리고 외재궁의 하우판을 닫고 봉표관이 봉표하였다.

재궁을 현궁에 내리면 곧바로 우주목(虞主木)을 모시고 퇴광 서쪽편에 설치한 소옥(小屋)에 가서 제주(題主)하였다. 그리고 우주를 침전에 봉안한 후 입주전(立主奠)을 거행하였다. 이후 국장의 의식은 이 신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오후 1시에 신주를 신연에 태우고 산릉을 출발하여 반우(返虞)하였다. 이때 국왕이 홍살문밖에서 지송하고 따라 서울로 돌아왔다.

49) 『산릉도감의궤』 「접견소의궤(接見所儀軌)」 품목(稟目).

50) 『경효전일기』 정유년 10월 28일(음).

4) 국장의 종결

혼전은 빈전으로 사용하였던 경소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빈전과 혼전의 가장 큰 차이는 시신의 유무이다. 혼전엔 시신을 넣은 재궁이나 이를 보관하는 찬궁이 없다. 그리고 영침(靈寢) 또한 없다. 혼전의 주인은 신주이다. 신주를 봉안하기 위해 혼전에는 좌탑을 깔고 그 위에 당가(唐家)를 세웠다. 당가 아래에 신탕과 교의를 두어 새로 만든 신주를 봉안하였다. 당가의 3면은 오봉장자(五峰障子)로 막았다. 신탕 앞쪽에 제상, 향안, 축상, 축대상 등이 놓이고 그 앞쪽에 마루를 뚫어 관지통(灌地筒)을 두었다. 관지통은 제향 때 망자의 체백(體魄)을 부르기 위해 올리는 울창주를 붓는 곳이다. 이것은 빈전과 달리 혼전이 조상신을 모시는 제향 공간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반우 때 신주 뒤에 받들어 혼전으로 가져왔던 혼백은 다시 능소로 모셔가서 곡장(曲墻) 내에 묻었다.

혼전에서는 아홉 번의 우제(虞祭)를 지냈다. 우제는 망자의 혼령을 위로하고 우주(虞主)에 의탁하는 제사이다. 조선시대 일곱 번의 우제와 달리 황후이기 때문에 아홉 번의 우제를 지냈다. 그리고 12월 8일(음 11. 15)에 줄곡제를 거행하였으며, 그 다음날엔 부알례(祔諱禮)를 거행하였다. 부알례는 상례의 부제(祔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당에 망자의 신주를 모시고 가서 조상에게 인사를 시키고 그 곁에 모시고 지내는 제사이다. 조선시대 국상에서는 생략된 의식이었는데 명성황후는 중국 역대 전례를 참조하여 시행하였다. 명성황후 신주를 종묘에 모시고 가서 종묘 정전의 상계(上階) 당중앙(堂中)에서 부알례를 행한 후 제 14일의 순조비 순원왕후(純元王后) 신위 왼쪽 편에 서쪽을 향하도록 모시고 부향제(祔享祭)를 거행하였다.⁵¹⁾

줄곡을 지내고 새로운 의식 부알례까지 거행함으로써 상례의 주요 행사는 끝났다. 조선시대 상례가 27개월의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만 장사지내고 반우한 후 줄곡을 마치면 큰 고비를 넘기고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였다. 줄곡 이후 공식적인 상례 절차는 첫 기일에 거행하는 연제(練祭), 두 번째 기일의 상제(祥

51) 『경효전일기』 정유년 11월 16일.

祭), 그리고 마지막 27개월째의 담제로 끝났다. 명성황후와 같이 내상(內喪)이 먼저 난 경우에는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11개월째에 연제, 13개월이 되는 첫 기일에 상제를 거행하고, 15개월째 담제를 지냈다. 이러한 의식들의 기능 중 중요한 것이 변복(變服)이다. 부모의 상인 경우 참최복을 입었던 상주는 연제 때 연복으로 갈아입고, 상제 때 담복으로, 담제 때 길목으로 갈아입는다. 그러한 변복을 통하여 상주를 비롯한 산 사람들은 애통을 줄이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명성황후의 국장도 이제 마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전례에 비추어보면 연제, 상제 등의 의식을 거행할 시기가 훨씬 지났다. 졸곡을 마쳤을 때인 양력 1897년 12월은 이미 두 번째 기일 이후였다. 그리하여 당시에 연제와 상제를 언제 거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 결론은 부제 다음 달에 연제, 연제 다음 달에 상제를 지내는 것으로 하였다. 당시 장례원경 김영목(金永穆)은 역대 전례를 참고한 결과 “장불이시조(葬不以時條)”에 나오는 “부제를 지낸 다음 달에 연제를 지낸다”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연제를 12월 12일(음력)로 정하였다고 하였다.⁵²⁾ “장불이시조”는 청대 예학자 서건학(徐乾學) 『독례통고』에 나오는 편명이다.⁵³⁾

이 편은 사정상 장례를 제 때에 치르지 못하고 늦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었다. 이에 의하면 장례가 늦어져도 정해진 연제와 상제를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상기(喪期)와 관계없이 그 의식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연제와 상제를 통하여 상주를 비롯한 산 자들은 상복을 갈아입고 점차 일상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변복을 위해 두 의식을 같은 달에 거행한다면 상례를 조금씩 끝낸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달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에 나오는 “삼년이 지난 후에 장례를 치른 경우엔 반드시 두 번의 제사를 지내는데 간격을 두어 같은 때에 치르지 않으면서 상복을 제거한다”⁵⁴⁾라는 구절에 따른 것이며, “부제를 지낸 다음 달에 지낸다”라는 구절은 이 경문에 대한 정현의 주석이다. 명

52) 『고종실록』, 고종 34년 12월 14일.

53) 『독례통고(讀禮通考)』 권 105, 「장불이시(葬不以時)」.

54)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 “三年而后葬者必再祭 其祭之間不同時而除喪”.

성황후의 국장은 이에 근거하여 음력으로 부제 다음 달인 12월 12일(양 1898. 1. 4)에 연제를 거행하였다.⁵⁵⁾ 그리고 역시 음력으로 그 다음 달은 1898년 1월 21일(양 2. 11)에 상제(祥祭)를 거행하였다. 한편, 담제를 4월 12일(음 3. 22)에 거행함으로써 마지막 예식을 마쳤다.

그러나 명성황후의 상례는 담제로 마쳐지지 않았다. 1898년 10월 5일(음 8.20)에 명성황후 사망 삼주제(三周祭)를 경효전에서 거행하였다. 고종은 오익선관(烏翼善冠)에 천담복을 입고 오서대를 차고 백화자(白靴子)를 신고 전에 나아가 곡하고 재배한 후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는 기제(忌祭)의 거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국장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 삼주제를 거행한 후 비로소 경효전에 올리던 조석의 상식과 주다례를 그만 두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2주기에 거행하는 대상 후 상식을 그만 두었는데 명성황후에서는 3주기까지 상식이 이어졌던 것이다. 상식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식사를 모방한 의식이다. 이는 돌아가신 부모를 산 자와 같이 여기고 봉양하는 의식이다. 조선시대 이미 상식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국상에서는 두 번째 기일까지 하는 것이 정식화되었다. 대상인 경우 상제를 지내고 상식을 그만 두었고, 내상이 먼저 난 경우라도 두 번째 기일까지 상식을 올렸다.⁵⁶⁾ 그러나 명성황후의 경우 2주기를 지나서 연제와 상제를 거행하였기 때문에 이 규정을 따를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상제나 담제를 지나서 3주기까지 상식을 지속시켰다. 상식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예법을 그만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죽은 자, 곧 신의 도리로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3주기 기제를 지냄으로써 명성황후의 국장은 마무리가 되었다.

55) 『고종실록』 고종 34년 12월 14일.

56) 『국조상례보편』 권2, 「혼전조석곡급상식(魂殿朝夕哭及上食)」.

5. 결론

황태자(순종)는 어머니 명성황후의 행록(行錄)에서 '빈전의 의장과 기물은 다 황색을 써서 법도대로 하였으나 황후 폐하 자신이 직접 볼 수 없으니, 끝없는 나의 비통함이 더욱 간절하다'라고 하였다. 어떠한 의례도 망자의 생을 회복시킬 수 없으며 산 자의 슬픔을 대신할 순 없다. 그러나 애통하며 망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죽음을 수용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명성황후의 국장은 잘 보여주었다.

본고는 3여 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명성황후의 국장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일반적인 국장과 마찬가지로 유교의 상례 절차를 준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명성황후 국장은 여러 면에서 이전의 것과 다른 점들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국모(國母)의 시해라는 불행하고도 치욕적인 죽음이다. 그리고 초기 국장에서 주권자인 국왕은 소외되어 있었다. 고종은 주변의 신하들에 의해서 왕후의 죽음을 공포할 수도 없었고 국장을 주도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명성황후의 초기 국장은 축소되고 주변화 되었다. 경복궁의 서북쪽 후미진 곳에 있는 태원전(泰元殿)을 빈전으로 정하였으며 지방관의 진향(進香)도 생략되었다. 그리고 갑오개혁 이후 정부 조직의 변화와 공물(貢物)의 폐지는 국장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의 공제 방식에 큰 변화를 주었다. 태양력의 실시 역시 달의 순환에 따른 기존의 삭망전(朔望奠)을 중단시켰다.

이러한 상황이 전환된 것은 1896년 2월 아관파천 이후였다. 고종은 갑오개혁을 이끌었던 기존의 친일세력을 배제하고 정치적 주도권을 잡았다. 그리고 9월 4일(음 7. 27)에 경복궁의 태원전에 있던 빈전을 경운궁으로 옮김으로써 왕후의 국장이 정치의 중앙에 등장하였다. 명성황후의 국장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었다. 청량리에 능소를 다시 정하고, 시호 역시 다시 정하였다. 나아가 음력에 따라 상례를 진행토록 하여 삭망전을 부활시켰다.

그리고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고종은 곧바로 대행왕후를 황후로 추존하였다. 대한제국의 성립은 국장에 큰 변화를 주었다. 고종은 황제로

즉위하자 곧바로 대행왕후(大行王后)를 황후로 책봉(冊封)하였다. 그리고 빈전의 의장(儀仗)을 황색으로 바꾸었다. 마침내 1897년 11월 21일(양)에 거행된 발인에서 황후의 의장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황후의 존숭을 통해 대한제국의 권위가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의장을 따라 고종은 황후의 능소까지 갔으며, 외국 사신의 참여도 이끌어내었다. 기존의 것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의식을 만들기까지 하였다. 능소의 정자각도 침전으로 지었다. 반우 후 우제를 9번 지냈으며, 졸곡 후에는 종묘 부알례를 거행하였다. 그리고 연제와 상제를 통해 국장을 마무리 하였다.

근대 시기 죽음의 의례는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대한제국기 국경일이 개국이나 황제의 탄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빈전이나 혼전이 궁궐의 후미진 곳에 정해지는 것 등이 그 예일 것이다. 그러나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은 그 비극으로 인해 장례식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근대로 나가는 또 하나의 추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근대의 낯선 것에 대한 반동으로 더 견고해졌는지는 차후 다른 사례를 통해 더 살펴보아야 할 과제이다.

주제어: 명성황후(明成皇后), 국장, 빈전, 대한제국, 삭망전, 의장(儀仗), 경효전(景孝殿)

원고접수일: 2018년 4월 27일

심사완료일: 2018년 6월 7일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12일

참고문헌

- 『景福宮平面圖』(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 『大韓明成皇后洪陵誌』(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4422)
- 『明成皇后國恤謄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2933)
- 『明成皇后 國葬都監儀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규 13879)
- 『明成皇后 殯殿魂殿都監儀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규 13885)
- 『明成皇后 洪陵山陵都監儀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규 13891)
- 『明成皇后 洪陵石儀重修都監儀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규 13896)
- 『殯殿移奉慶運宮時班次圖·明星皇后發靛班次圖』(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3-550)
- 『景孝殿日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2418)
- 『명성황후시책문(明成皇后謚冊文)』(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장 K2-4048).
- 박계리,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명성황후발인반차도〉 연구」, 『미술사논단』 35(2012): 91-115.
-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5).
- 안경호, 「조선후기 빈전건축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 이육, 「근대 국가의 모색과 국가의례의 변화 - 1894~1908년 국가 제사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95(2004):59-94.
- 한영우, 『명성황후와 대한제국』, 서울:효형출판, 2001.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the Empire of Korea and Changes in State Funerals for Empress Myeongseong

Lee Wook(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death of Empress Myeongseong(1851-95), who was assassinated on August 20, 1895 (lunar calendar), was officially announced on October 15 (lunar calendar), over two months later. Begun at this point, state funerals for Empress Myeongseong proceeded through largely three stages. State funerals for Empress Myeongseong did not swerve from the overall framework of state funerals during the Joseon Dynasty (1392-1897). Continuity was maintained because the ideology and rituals of Confucianism were followed. As for elements of change that emerged amidst such a situation, some were extensions of changes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Dynasty while others stemmed from changes in government organization following the Gabo Reforms, import of Western elements, and political positions of the dominant groups. In addition, above all, changes arising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Empire of Korea had significant effects. A reinforcement of traditional rituals with the advent of a new era, all

of this will form one axis for understanding the modern era in Korea.

Keywords: Empress *Myeongseong*, State funerals, *Binjeon*(殯殿, the royal coffin hall), Empire of Korea, Honor Guard. *Gyeonghyojeon*(景孝殿)